

NEWSLETTER



상반기 | MAY - 2025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 (고린도 전서 15 장 58 절)



사랑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5 년도 새해를 맞이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올해 2 월 3 일-6 일에는 제 13 차 영적 각성 집회 및 총회를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한국, 호주 세 나라의 임원, 회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총회 소식은 연말에 발행 예정인 제 59 호 회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보고로는 지난 2 년의 사역을 각 지부가 서로 나누며, 또 앞으로의 비전과 새로운 방향을 의논함으로 WCNF 의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시간 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 (WCNF)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주님께 칭찬받는 선교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피니라.” (요일 4:21)

간단한 사역 보고로는 열악한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감사한 소식은 올해부터 독일에서 아프칸 난민사역을 하시는 조성현, 조정이 선교사님과 한국 부산 에서 다문화 아동 사역을 하고 계신 오은주와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2 차 징검다리 리트릿을 6 월 30 일-7 월 3 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WCNF 장학 사역도 활발히 진행되어 제 4 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캄보디아 라이프간호대 장학금 후원과, 올해부터 WCNF Student Chapter 가 결성되어 간호 대학생들의 차세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지회가 새 리더십을 맞이해서 지회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눕니다. 다시한번 선교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안젤라 서 드림

제 2 차 징검다리 영성 수련회

제주에서 백두까지 하나된 한반도의 꿈을 품고 여러분을 제 2 차 징검다리 영성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징검 다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5 년 6 월 30 일 (월 오후 1 시) ~ 7 월 3 일 (목 오후 1 시)

장소: 제주 명성 선교 수양관

Speakers

- 피터 양 목사님 (성령의 샘 대표)
- 고희원 선교사 (부흥 한국 대표)

간호와 선교

- 이병숙: 임상에서의 영적 간호
- 최지예: AI and Christian Mission in Healthcare: Technology as a Tool for Compassionate Care
- 오은주화: 다민족 어린이 선교

참가비/안내 :

- 미주 WCNF 회원: 수련회 참가비 \$250 (항공료 본임부담)
- 한국 WCNF 회원: 수련회 참가비 35 만원 (항공료 본임부담)

- ✓ 수련회 장소는 제주공항에서 약 1 시간 거리입니다.
- ✓ Airport pick-up service 없음- 택시 운행





정예린

WCNF Student Chapter President
(Azusa Pacific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쭙쭙쑤어! (캄보디아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자란 선교사 자녀이자, 2024년 WCNF 장학생, 그리고 2025년부터 WCNF 차세대 회장을 맡게 된 정예린입니다. 현재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간호학과 1 학년을 마쳤고, 간호사라는 사명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입에 담게 된 건, 하나님께서 제게 간호사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Travel Nurse가 되어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간호 선교를 하고, 부모님처럼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나아가 저처럼 간호사의 비전을 가진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통해 도움받았듯, 다시 누군가의 길을 밝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첫걸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WCNF 차세대 모임입니다. 비슷한 마음과 부르심을 가진 간호학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student chapter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 이후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이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마음 한뜻을 가진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모임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이 공동체가 단지 빛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세대들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 안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학업은 지혜와 끈기로,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도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팔 선교 소식

윤종수&방영숙

와곳 공가교회 새해 맞이 기도회

어제가 네팔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네팔 달력은 비그람 섬벌(Bikram Sambat)이라고 해서 2082년 버이삭 새달이 시작되었는데 인도 라자스탄 비그람 아디띠야 왕이 기원 전 56년 사카스와의 전쟁에서 인도 왕의 전쟁 승리 날로 시작하는 비그람 달력을 오늘날 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네팔에 대한 인도의 영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네팔 곳곳에서는 새해 축제가 열렸어요.

새해 첫날, 누와곳에 있는 해발 3,500m 공가 교회에서는 새해 맞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당에 그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 뜨겁게 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님도 네팔의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곳 히말라야의 땅에서 기도합니다.



다딩 꺄렁므렁교회당 봉헌식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히말라야 산길을 지나 다딩 꺄렁므렁교회로 찾아갑니다. 이런 히말라야 오지에서 200여명의 성도들은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지진으로 옛날 예배당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영광의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제 성도들은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 니제르는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에 더욱 많은 제재와 감시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선교사 중에 거류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비교적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퇴거 당하는 일도 생기면서 저희를 포함,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조금 더 마음을 줄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완료되어 거류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것을 기도합니다. 곤고한 날들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료인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서은성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레이스 아카데미 설립자께서 간호학교와 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중에 4 명의 간호 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서은성 선교사가 이전에 간호사였다는 걸 기억하실까요? 서 선교사는 이곳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사역합니다. 성경 교사로서 정착된 서은성 선교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의료인들과 함께 있으니 더욱 자기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이 과연 진리였습니다

대학을 갓 입학한 청년들을 위해서 환영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온 청년들에게 우리 집엔 언제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우정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중심이며 궁극적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모슬렘 청년, D도 한 번의 결석도 없이 매주 우리 집을 찾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모든 날 동안 들으며 형성되었던 모슬렘식 사고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복음 앞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복된 것은 일시적 번영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사랑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흘리는 눈물, 감동 이런 것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깨어지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한국에선 상치, 니제르에선 썰러드

거의 일 년 내내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를 가진 사막의 나라 니제르는 좋은 채소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2월부터 시작되는 시원한 계절에는 양질의 상치를 구할 수 있어 저희도 이 계절엔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시장에서 산더미만 한 상치 꾸러미를 사다가 학생들 방문할 때 가지고 갔습니다. 상치와 함께 서은성 선교사가 만들어 준 썰러드 드레싱이 큰 히트를 쳤습니다. 쟁반에 담아 땅바닥에 내려놓고 먹는 것은 정겨운 일상이지요. 이런 작은 간식의 현장이 있어야 그들의 마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되기에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리딩 프로젝트

서은성 선교사의 찬송가 가르치기 사역과 더불어 채플 예배 시간에 모든 학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니제르 교회를 향한 소중한 사역이며 이 열매가 장차 더욱 선명히 나타나라 믿습니다. 또한 '리딩 프로젝트'를 통하여 크리스천들에게 책을 보급하고 좋은 신앙 서적을 함께 읽어가는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게 될, 또 누군가에게 전수될 진리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도구가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기쁘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가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 지난 1월에 결혼하였습니다. 아들, 지호도 이번 5월에 졸업과 더불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선교사 자녀 자매를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룬 유나와 앞으로 곧 있을 지호의 결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자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지호와 유나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한지 7년이 되는 2016년 폐암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기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이었지만 은혜가운데 수술후 관리를 위하여 한국을 오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모두가 정지된 듯한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온 지 12년이 되는 2023년부터 차차로 체력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왕립농과대학 신기조



왕립농업대학교 정문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2011년 선교지 왕립농업대학교에 도착하여 드렸던 기도가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금년은 14년이 되는 때에 새롭게 대학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 더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브링업인터내셔널 캄보디아사업본부장으로 센터(가스펠하우스) 사역과 브브링업 사역을 담당하는 정재윤선교사(목사),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 임평강 선교사(중의사)가 함께 사역을 하고, 금년 6~7월 사이에 새롭게 보건실로 파송될 오원평선교사(목사, 중의사)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교의 전초기지 위에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 대로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시고, 필요한 재정도 보내시는 것을 감사 드리며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선교지의 틀이 잡히니 제가 할 일은 처음처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 나누는 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수술 후에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 중심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사들도 제자들도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체력도 점차 좋아지게 하시며 다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

수의대 4학년 슬라이모이, 기술대학 2학년 찜라운, 기술대학 1학년 헤잉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 ✚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선교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시도록
- ✚ 우리 대학교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 ✚ 가스펠하우스(센터) 사역과 웰터하우스 사역과 대학보건실 사역, RUA 브링업 캄보디아 사역이 은혜 중에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 ✚ 어떤 통로로든 연결되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라 가도록
- ✚ 소속 선교사들의 후원자 개발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 공급을 위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성현·조정이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WCNF가 저희의 아프간 무슬림 난민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을 시작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프간 무슬림 난민 선교 사역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의 사역은 아프간 기독교인 양육과 아프간 무슬림 선교 사역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아직도 무슬림이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 모두가 본토의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선교 사역은 집단적인 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보다 일대일로 만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역들이 난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제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형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역을 오픈할 수가 없어서 사역 대상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상에 올리지도 못하고 사역에 대한 것도 전하지 못함에도 주님께서는 저희 사역에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서로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가족들이 모여 아프간 기독교 가정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

아프간 여성 트라우마 힐링 사역

- 아프간 난민 여성 트라우마 힐링 사역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아내 조정이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 여성들 중 아픔과 상처로 인해 이 사역을 통하여 자살을 기도했던 두 여성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조금씩 회복되며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많은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3월 21일 페르시아인 새해 파티 행사

- 아프간 무슬림을 위한 선교 행사로서의 새해 파티는 두 번, 두 지역으로 나누어 라마단이 끝나고 4월 5일(토요일), 6일(일요일)에 합니다. 새해 행사는 "새로운 해의 시작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새해 행사를 통하여 아프간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간 이란 난민 축제

- 독일의 옛 수도 본에서 아프간 이란인 난민을 위한 축제, 5월 16, 17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행하게 될 축제의 한 행사가 난민 여성들의 손에 Henna를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난민 여성들에게 Henna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자 합니다. "돌아 온 탕자" Henna를 그리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인데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월부터 프랑크푸르트 중심에서 **Busking 사역**으로 통기타 하나로 영어 아프간 다리어 그리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주제로 **아프간 그리스도인 가족 여름 성경 세미나 및 가족 수련회**를 2025년 8월 8일-10일 이은상 목사(세미한 교회 담임목사), David Page(IMB PPC leader), Peter Sung Cho를 모시고 아프간 MBB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 살고 있는 아프간 기독교인 가정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을 정기적 방문으로 **일대일 제자 훈련을 활성화**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교회로 개방하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 독일 전역에 있는 아프간 그리스도인들과 **네트웍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 영대(31살)와 영준(25살)**이 한 교회를 위하여 음악 엔지니어, 전자 기타 연주자, 드럼 연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 큰 아들 영대의 직장생활과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공부 및 학비가 온전히 충당될 수 있도록

-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슬림 난민 사역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무슬림들이 발견하여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May God's grace be with you always

캄보디아 성진숙 선교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엡 1:2)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2025년은 더욱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부족한 저를 충성
되이 여기시여 사역지인 모노롬 WCNF 클리닉, 교회,
유치원 방가후 학교 외에 라이프 대학에서 명예 부총장
직분과 교수진을 다시 맡게 되었기에 더욱 분주했습니다.
1월과 2월엔 4번의 단기 선교팀들을 맞아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노롬 교회 교인 12명이 6개월 동안의 세례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4년의 라이프 간호대학 마친 후 8년의 의과대학 마친 의사부부가
졸업을 했고, 면허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training 을 마치는
5년 후 자격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부의 면허로 모노롬
WCNF Clinic 이 법에 허락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노롬 교회의 아주 가난한 교인들의 자녀들 3명이 사립고등학교 에서 재학 중이고, 2명은 직업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10명 입니다. 교인들의 부흥과 함께 주일 학생들도 100여명이 참석합니다. 주말 청소년 사역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찰 부부가 5번째의 딸을 순산하였는데 교회에서 집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1층은 미용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이 미용실로 사용할 공간이고 이층은 사찰 부부 가족의
집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노롬 교회 현지인 목회자 미엔 목사 부부의 파송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올 9월에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간호 라이프대학에 자격이 있는 11명이 시험에 합격 후 신입생
으로 입학하여 올해 3월 마지막 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WCNF 를 통하여 총 32명이 선출되어 현재 장학금의 혜택을
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라이프 대학에서 간호대 신입생
모두에게 기숙사 비용 전액과 장학금으로 등록금 \$320을 4년
동안 기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 한지요!

부족한 교수진 운영에도 유수옥 교수님, 한숙원 교수님, 정복례
교수님 등 많은 단기 방문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옥 교수님의 도움으로 올 9월엔 장기로
계실 간호대 교수님이 한 분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6개월의 안식년으로 지금 뉴욕 딸 집에 와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캄보디아로 돌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기도 제목

- ✚ 라이프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3개월 늦게 시작
했는데 잘 따라 갈 수 있도록
- ✚ 강건함으로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 모노롬 교회와 WCNF Clinic 을 위해 준비하신
신실한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시길
- ✚ 모노롬 사역지에서 저의 공석 기간 동안 사역
하시는 정준영 선교사님 부부와 미엔 목사
부부, 쏘든 부부, 사찰 집사님 가정과 쓰래이
누은 가정, 그리고 학사 하고 있는 5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에 따라
신실한 믿음으 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 ✚ 쓰래이 누은 가정이 거쳐 할 집과 미용실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 ✚ 미엔 부부가 올 9월에 떠나고 준비된 현지인
목회자 부부가 부임 해 올 수 있도록
- ✚ 세례받은 12명의 성도들이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 ✚ 쏘도릭과 붓리엔 의사 부부가 레지던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 제목

● 박순복 선교사 (캄보디아)

1. 주신 비전대로 전 삶을 주께 드려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 맡겨 주신 학생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3. 순간순간 앞에 놓이는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전 삶을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도록
4.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 황옥남 선교사 (캄보디아)

4. 그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으로 양육할 지체를 만나게 하소서
5. 양영란 교수와 함께하는 NCD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꼭 이 나라에 필요한 연구가 되도록
6. 2025년 2단계 사업 채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주홍숙, 서복희, 김도인 선교사 (과테말라 갈릴리 공동체)

1. 김도인 · 주홍숙 선교사의 건강회복과 사역중인 선교사님들의 성령충만과 강건함을 주시도록
2. 갈릴리 공동체 학교에 믿음의 선생님과 준비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도록
2.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교회를 섬기는 6명의 담임교역자들이 영혼구원을 집중적으로 설교하여 학생들이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어 과테말라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3. 공동체의 각 program에 성령님께서 참가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 임현진, 권홍량 선교사 (차드)

1. 선교지 차드의 만바공동체가 후임 선교사를 통해 잘 진행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2. 성령충만으로 깨어 기도하며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3. 권홍량선교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어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4. 장학재단사역이 활발히 진행되어 차드 세대가 세워지도록

● 오은주화 선교사 (다문화 아동사역)

1.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2. 다문화 사역센터를 위해 예비된 좀 더 넓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3. 열매학교(제자훈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교사들이 성령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5월 초에 계획된 가족캠프에 많은 이주민 가족들이 참여 하여 복음을 믿음의 귀로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변/평양 과학기술대학 (YUST & PUST)

1. 김진경 총장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지로 흠어진 연과대 교직원들과 졸업생들이 각 지역, 각 민족,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2. 암흑의 땅에서 박해와 고통속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양과기대 간호학과 설립을 위한 재정적 후원과 북한의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3. YUST에서 사역하던 교수님들이 새 선교지에서 장기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4. PUST 이승율 총장님과 학생, 교직원, 봉사자들에게 성령충만과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뉴욕 지회 소식



뉴욕지부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마치고..

지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WCNF 회원님들과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뉴욕지부는 지난 3월 30일 새롭게 헌신하고자 모임을 갖었는데, LA에서 안젤라 서 총회장님과 김명자, 신지은 이사님과 최정애 회원님께서 방문하여 25년간 WCNF의 사역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뤄 주신 아름다운 여정을 나눠 주셨습니다.

모임을 위해 안젤라 서 총회장님 이하 여러분의 중보와 동역으로 함께 해주셔서 24명이 오셨는데 그 중 5분의 새로운 회원과 4분의 준 회원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강한 믿음과 굳건한 영성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 또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 중심에 있는 뉴욕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 하기에, 새롭게 조직 되어진 뉴욕지부가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뉴욕지부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지부가 될 수 있도록 WCNF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욕 지회 모임

뉴욕지부장
전희연 드림

WCNF (Student Chapter)

- 회장 - 정예린 (APU)
- 회원 - 이은수, 강이한, 신동일(APU)

*APU (Azusa Pacific University)
간호대학생들



평생 회원

- 604 김병연 서부열린문교회장로
- 605 한애권 라구나힐교회권사
- 606 이성주 뉴욕지회장부군
- 607 김향숙 형제교회교인
- 608 김정인 서울대간호대동문
- 609 남현숙 라구나힐교회권사
- 610 주명남 부산대간호대동문
- 611 이창렬 뉴욕지회 부회장
(이성자) 부군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424)426-5435, Cell (949) 933-1287

E-MAIL wcnfusa@gmail.com, wcnfusa.org/Zelle I.D-wcnfusa@gmail.com.

한국지부: Tel (02) 764-1227 Cell 010-9933-2901

wcnfkorea@hanmail.net, wcnfkorea.org

호주지부: Tel (+61) 411-879-778 wcnfaustralia@gmail.com